

토정비결

1972년 3월 18일 | 양력 | 여성

토정수

469

연운 (한 해의 운세)

올해는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겠습니다. 봄에 심은 씨앗이 가을에 황금빛 결실을 맺듯, 귀하께서 준비해온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기쁜 소식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되니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건강과 재물운이 고르게 상승하는 길한 한 해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계획한 일들을 추진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 ##

1월

새해의 시작과 함께 밝은 기운이 가득한 달입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이니, 용기를 내어 첫 발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친지들과의 화목한 만남이 한 해의 복을 부르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

2월

작은 변화가 큰 행운을 가져오는 달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좋은 인연이 시작되니 열린 마음으로 교류하시길 권합니다. 재물운이 서서히 상승하는 시기이니 꾸준한 저축과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

3월

생일이 있는 이달은 새로운 기운이 충만한 길한 달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인정받을 일이 생기며, 그동안의 노고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쓰며 활기찬 봄기운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

4월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처럼 모든 일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달입니다. 특히 금전운이 좋아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길 수 있으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겸손함을 잊지 마십시오. 주변의 도움 요청에 선뜻 응하시면 나중에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

5월

가정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즐거운 소식을 듣게 되는 달입니다. 여행이나 외출에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으니 답답한 마음이 들 때는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시길 권합니다.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찾아오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

6월

상반기를 정리하며 안정을 찾는 달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계획을 세우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신뢰를 얻게 되어 중요한 일을 맡게 될 수 있으니 책임감 있게 임하시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

7월

무더운 여름이지만 마음만은 시원하고 상쾌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달입니다. 재물운이 특히 좋아 사업이나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서 일과 쉼의 균형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

8월

귀인의 도움으로 어려운 문제가 술술 풀리는 행운의 달입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던 일에 명쾌한 해답을 얻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시면 복이 더욱 커집니다. ##

9월

결실의 계절답게 그동안의 노력이 풍성한 결과로 돌아오는 달입니다. 승진, 사업 성공, 또는 재정적 여유가 생기는 등 기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주변과 나누는 마음을 가지시면 더 큰 행복이 따를 것입니다. ##

10월

평온하고 안정적인 기운이 감도는 달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을 가져다주니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넉넉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건강운이 좋아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지니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

11월

뜻밖의 기회가 찾아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달입니다.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 도전할 기회가 생기니 망설이지 말고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조언에 귀 기울이시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뿌듯함과 감사함이 가득한 달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쌓은 공덕이 복으로 돌아와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시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면, 다가올 한 해도 밝고 희망찬 날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

토정 이지함 선생의 말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나니, 긍정적인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매일을 살아가시면 반드시 복이 따를 것입니다."

토정비결은 조선시대 토정 이지함 선생이 만든 운세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